

Appendix

## 한국모태펀드와 벤처·엔젤투자 그리고 벤처지원방안

## 1. 한국모태펀드의 탄생

자연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벤처생태계 역시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생태계로서 기능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벤처 자금은 공급자 중심의 투자 정책에 발목이 잡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 일률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바람에 시장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공급을 받지 못했고, 성장은 더뎠다. 때와 장소에 맞게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사명을 띠고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했다. 한국벤처투자의 주요 임무는 '한국모태펀드'의 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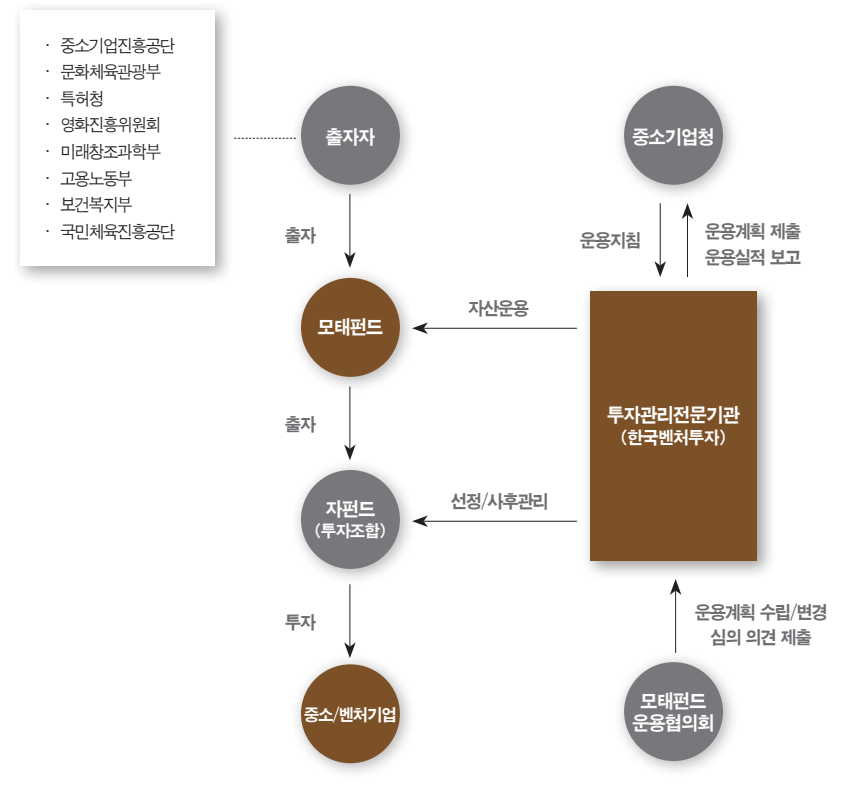
한국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8개 정부부처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결성되었다. 한국모태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조성된 펀드지만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은 아니다.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에서 결성/운영하는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모태펀드 제도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시장 수요를 파악하여 때와 장소에 맞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므로 내부에 투자 전문조직을 갖추지 않고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년의 단기 지원 방식이 아니라 회수된 재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갖추는 데 일조한다. 나아가 과거 실적을 따져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모태펀드 운용 체계

모태펀드에는 여러 주체가 있다. 자금을 출연한 출자자(8개 정부부처)와, 결성된

## 모태펀드 운용체계



자금의 운용지침을 제시하는 방향 설정자(중소기업청), 주어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협의회(모태펀드 운용협의회), 협의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직접 자펀드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맡는 운용자(한국벤처투자), 출자 대상이 되는 자펀드(투자조합), 그리고 투자조합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는 중소·벤처기업이다.

모태펀드의 출자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8개 정부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처 및 기관의 정책 방침 및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계정을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모태펀드 운용은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하는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기반으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매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직접투자펀드(자펀드)에 대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운용계획은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사업계획의 개념으로 당해연도 출자사업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모태펀드 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확정시 출자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운용협의회는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 출자자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벤처투자가 상정하는 안건을 협의방식으로 결정하는 협의체이다.

모태펀드의 운용기간은 30년이며, 출자가 가능한 투자조합 형태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결성된 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혁신기술사업, 창업초기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등이며, 투자금은 투자된 사업 및 기업의 R&D 자금과 제품개발 자금, 양산설비 구축,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 모태펀드의 마중물 효과

모태펀드 운용의 가장 큰 성과는 '마중물 효과'다. 신뢰성 높은 공공 자금이 벤처생태계에 유입되자 민간 자금 역시 속속들이 참여하며 벤처생태계를 풍요롭게

### 모태펀드 투자재원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진계정*	1,701	1,100	900	800	2,850	1,000	255	25	325	625
엔젤계정							90	700	500	300
문화계정**		500	1,000		1,200		520	400	300	200
미래계정						100				500
영화계정						110	60	50	100	100
특허계정		550	550		330					
보건계정									200	300
지방계정										100
합계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1,175	1,425	2,125
누적합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주: 모태펀드 납입 기준으로 중진기금 등의 회수금 미포함  
 \* 고용부 100억 출자(사회적기업펀드 용도) 포함  
 \*\* 영화기금 1,100억 출자(글로벌펀드) 포함

만들었다.

모태펀드는 2005년 1,701억 원을 시작으로, 만 4년 만인 2009년에 1조 1,481억 원이 조성되었다. 2014년 말 현재에는 1조 8,341억 원까지 재원이 불어나는 등 첫째보다 10배 이상 많은 자금이 모여 현재의 모태펀드를 이룬다.

계정별 자펀드 결성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	합계
펀드수 (비율)	247 (70.4%)	11 (3.1%)	1 (0.3%)	49 (14.0%)	30 (8.5%)	5 (1.4%)	6 (1.7%)	2 (0.6%)	351 (100.0%)
총 결성액 (A) (비율)	83,340 (77.6%)	1,400 (1.3%)	100 (0.1%)	10,107 (9.4%)	8,358 (7.8%)	620 (0.6%)	1,153 (1.1%)	2,350 (2.2%)	107,428 (100.0%)
모태 약정액 (B) (비율)	17,461 (65.8%)	1,290 (4.9%)	50 (0.2%)	4,023 (15.2%)	2,447 (9.2%)	320 (1.2%)	535 (2.0%)	400 (1.5%)	26,526 (100.0%)
모태 약정 비율 (B/A)	21.0%	92.1%	50.0%	39.8%	29.3%	51.6%	46.4%	17.0%	24.7%
평균 결성 금액	337	127	100	206	279	124	192	1,175	306
평균 모태 약정액	71	117	50	82	82	64	89	200	76

\* 2014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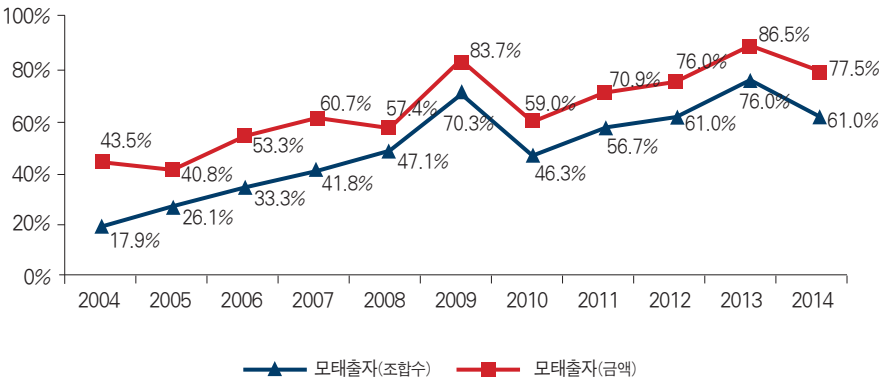
모태펀드는 결성 초기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51개의 자펀드에 2조 6,526억 원을 출자했다. 민간 자금은 모태펀드 출자금보다 약 3배 이상 많이 유입되었고, 이 덕분에 자펀드가 결성한 총액은 10조 7,428억 원에 이르렀다.

모태펀드는 출자하는 자펀드를 양적으로 늘리는 작업도 병행했다. 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조합 비중

(단위: 개,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조합 (A)	조합수	39	46	48	67	51	74	67	67	41	54	82
	금액	6,450	9,454	8,617	11,279	9,751	14,214	15,899	22,838	8,228	15,679	25,382
모태 출자 조합 (B)	조합수	7	12	16	28	24	52	31	38	25	41	50
	금액	2,804	3,858	4,590	6,851	5,597	11,902	9,381	16,197	6,255	13,562	19,680
비율 (B/A)	조합수	17.9	26.1	33.3	41.8	47.1	70.3	46.3	56.7	61.0	76.0	61.0
	금액	43.5	40.8	53.3	60.7	57.4	83.7	59.0	70.9	76.0	86.5	77.5



전체 시장에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59%였으나 2011년 이후 70%를 넘어섰고, 2013년에는 86.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에는 77.5%로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비중은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은 최근 5년 가운데 민간자금 유입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해로 기록되었다.

## 2.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자금 조달 수단,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은 주로 벤처기업을 포함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나 혹은 이런 자본을 투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설립 초기의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높은 자본이득을 얻는 금융기관을 보통 ‘벤처캐피탈’이라고 부른다.

벤처기업은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문제가 심각하여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기존의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실적 또는 담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령 기준을 통과하여 융자를 받더라도 담보나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가운데 탄생한 벤처캐피탈은 시장과 기술동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자금 조달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 벤처캐피탈 업계 현황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벤처캐피탈이 시작되었

### 2014년 국내 VC 조합 숫자와 결성금액

결성된 신규 조합	결성금액
82개	2조 5,38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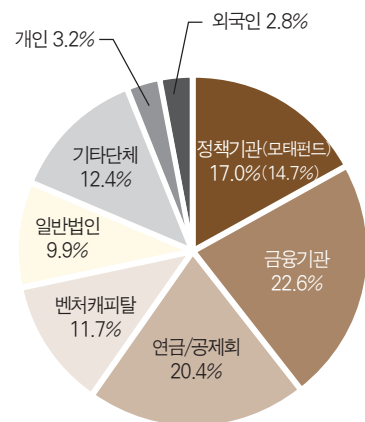
### 2014년 벤처 투자 현황

투자받은 업체	투자금액
901곳	1조 6,393억 원

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전국에 벤처붐이 일기 시작하여 2000년에 고점을 찍게 된다. 이후 벤처 버블의 붕괴와 함께 조정 기간을 거친 뒤 2005년 한국벤처투자(한국모태펀드 운영기관)가 출범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창조경제에 힘을 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벤처투자는 2014년에 1조 6,393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신규투자금액을 기록했다.

벤처캐피탈은 크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된다. 창투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금융회사로, 융자를 지원하고

## 2014년 말 기준 출자자 비중



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한다는 점에서 창투사와 성격을 달리한다.

창투사는 2000년 말 147개에 이르렀으나 2000년 기술주 버블 붕괴 이후 꾸준히 감소, 2008년에는 97개사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2006년 이후 납입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완화(최소 납입자본금 100억 원→70억 원→50억 원)하는 등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에 힘입

어 2014년 말 기준 창투사는 103개가 운영되고 있다.

## 벤처캐피탈에서 운영하는 펀드 현황

창투사의 숫자는 100개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데 반해 펀드의 수와 결성액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2014년 말 기준 벤처캐피탈업계에서 운영 중인 조합은 총 481개로, 이 조합에서 결성한 펀드 총액은 12조 1,906억 원에 달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82개의 신규 조합이 결성되었고, 결성금액은 2조 5,382억 원을 기록,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2014년 투자 현황을 보면 901개의 업체에 1조 6,393억 원이 투자되었다. 2013년 대비 18.4%가 증가한 것으로 200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투

자금액 역시 5년간 평균 투자금액보다 높았다. 기업당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8.2억 원으로 5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 출자자 현황 |

2014년 출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금융기관으로 22.6%에 달하며 연금/공제회가 20.4%, 정책기관이 17%를 기록했다. 정책기관의 출자금 가운데 모태펀드의 비중만 따지면 14.7%이다.

벤처투자 가운데 운영조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투자파트너스로 운용 총액이 6,823억 원에 이르고, 다음이 스틱인베스트먼트(5,675억 원), LB인베스트먼트(5,551억 원)이다(2014년 기준). 상위 10개의 벤처캐피탈이 전체 조합 자금의 34.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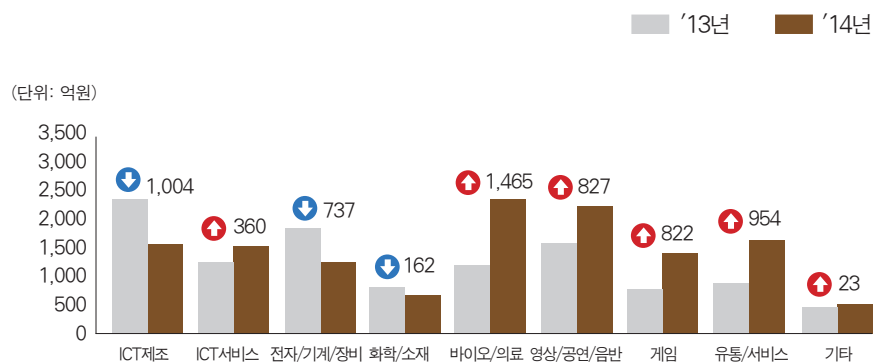
## | 업종별 현황 |

투자 기업을 업종별로 따져보면 ICT 분야가 2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이 바이오/의료(17.9%), 영상/공연/음반(17.0%) 순이었다. ICT 업종 투자는 작년에 비해 줄었으나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등 전통 제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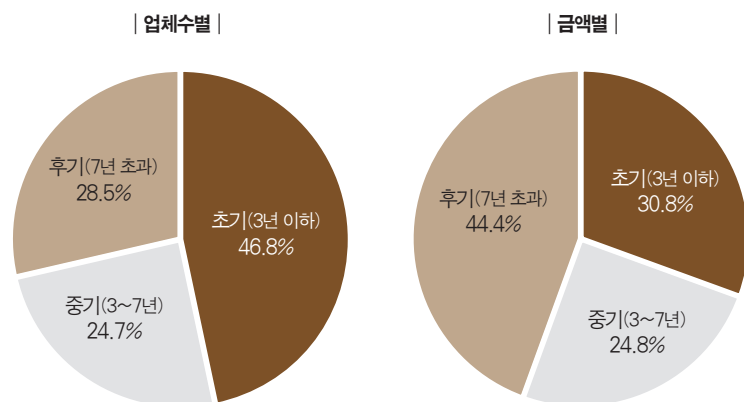
## |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초기기업이 4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업체 수 기준). 금액기준으로 보면 7년 초과 후기기업이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 업종별 신규투자 증감 현황



## 2014년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 벤처캐피탈 투자 프로세스

벤처캐피탈은 '조합결성 → 투자대상 기업선정 → 기업가치 분석 및 투자여부 결정 → 투자실행 → 사후관리 및 회수'의 일련과정을 거쳐 투자를 진행한다. 조합결성에 회수까지 보통 5~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창업자본(seed), 엔젤(angel), 초기(early), 확장(expansion) 등의 단계에 따라서 자금투자가 이루어지고, 이후 기업공개 및 M&A 등을 통해 회수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성격이 구분된다.

### | 창업준비 단계 |

창업 준비단계의 투자는 벤처기업의 시장분석이 완료되고 제품이 테스트 단계에 있는 시제품 형태로 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의 과정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의 투자는 제품개발의 완성과 마케팅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

### | 엔젤투자 단계 |

엔젤투자 단계에서는 주로 벤처기업 창업가가 창업 아이디어나 사업계획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투자양해각서 혹은 투자계약서와 같은 정식계약서 없이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의 투자는 대부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된다.

### | 초기 단계 |

초기 단계의 투자는 베타 테스트가 완료되어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초기단계			확장단계		
창업 (Seed)	엔젤 (Angel)	연구개발 (R&D)	초기 (Early)	확장 (Expansion)	메자닌 (Mezzan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개발, 시장조사, 사업계획 자금</li> <li>초기단계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시제품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상업적 생산과 마케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확대, 운전자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확장자금</li> <li>자본금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지원되었다가 기업공개시 증자자금으로 상환되는 자금</li> </ul>
Before IPO 단계			Pre IPO/IPO 단계		

\* 출처 : Private Equity Fund(2015)

상태이며, 제품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 실현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투자된 자금은 제품의 상업적 생산과 마케팅에 사용된다.

### | 확장 단계 |

확장 단계의 벤처기업은 제품 혹은 서비스가 완성되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계로 손익분기점 이상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채널의 확대, 시설 및 운전 자금 확보, 인력확충 등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투자를 받게 된다.

### | 메자닌(mezzanine) 또는 브릿지(bridge) 단계 |

이 단계의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성이 일정 수준에 이미 도달한 단계로 상장 이전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투자를 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프로젝트 투자, 구주매매, 신주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3. 엔젤투자매칭펀드

한국벤처투자는 엔젤투자자 육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출범시켰다.

엔젤투자는 개인이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주고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주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며 투자받은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 투자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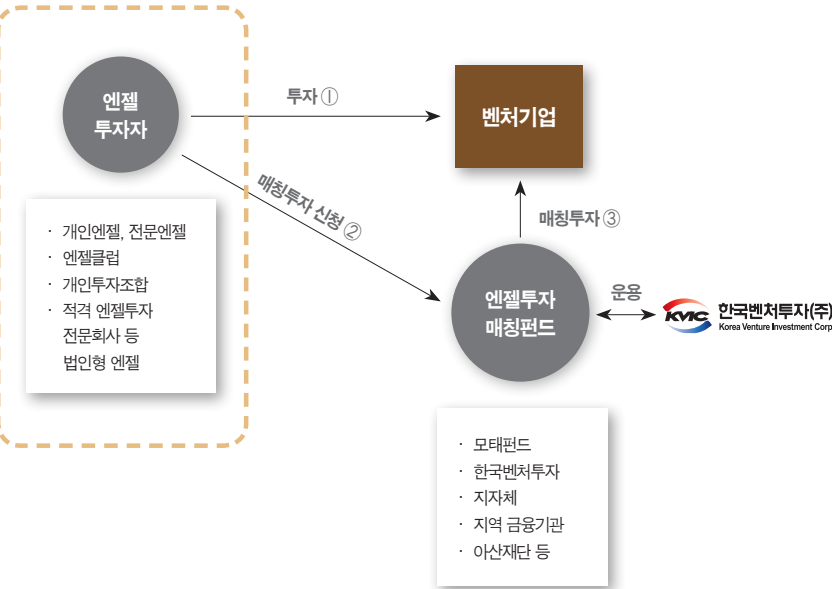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 금액의 100%를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덜 갖는 초기·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 창업초기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sup>1</sup>에 투

<sup>1</sup>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까지 (post-money기준)가 5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2. 창업자(업력 7년 이내),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이상인 기업.



그림1 |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구조



자를 한 후, ②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매칭투자 신청을 하면 ③ 1차·2차 심사를 통해 한국벤처투자(주)가 투자하는 구조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동일 기업가치 및 동일 주당 발행가액 등)과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통주 혹은 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만을 대상으로 매칭을 실시한다. 매칭 비율은 일반적으로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배수(1:1=엔젤투자자:엔젤투자매칭펀드) 이내이나, 재창업기업 2배수, 지역소재기업 1.5배수, 그리고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2배수 이내로 매칭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림2 | 엔젤투자매칭펀드 프로세스

구분	신청인	엔젤투자지원센터 / 지역엔젤관리기관	한국벤처투자(주)
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서류 전산업로드 (www.kban.or.kr)	신청서류 완비확인,	
		↓	
		오프라인 제출서류 확인 (클럽기준)	
접수		↓	
		신청서류 접수	
		↓	
1차 투자적격 확인		1차 투자적격 확인 (현장확인 포함)	
		↓	
		1차 판정결과 보고	1차 판정결과 접수
2차 투자적격 확인			↓
			심의보고서 작성 (필요시 추가 실사)
			↓
			적격판정위원회 개최
			↓
			2차 투자적격 확인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접수	판정결과 확인	←.....→	↓
		↓ ↓	최종 판정결과 통보 (신청인)
		승인기업    탈락기업	↓
		↓ ↓	이의신청 접수
설명회 개최	↓	←.....→	↓
		↓ ↓	탈락사유 통보(신청인)
		↓ ↓	설명회 개최 (승인기업, 엔젤)
투자계약			↓
			투자계약/자금집행

## 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현황

엔젤투자 매칭펀드 결성현황			
	결성액	결성일	만기일(투자기간)
<b>2011년</b>	<b>100억 원</b>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1호	100억 원	2011-12-05	2020-12-04(9년)
<b>2012년</b>	<b>770억 원</b>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2호	330억 원	2012-08-16	2021-08-15(9년)
대학 엔젤투자매칭펀드	210억 원	2012-08-16	2021-08-15(9년)
경남 엔젤투자매칭펀드	50억 원	2012-06-05	2021-06-04(9년)
부산 엔젤투자매칭펀드	50억 원	2012-06-21	2021-06-20(9년)
광주엔젤투자매칭펀드	50억 원	2012-08-03	2021-08-02(9년)
강원 엔젤투자매칭펀드	30억 원	2012-10-19	2021-10-18(9년)
대구 엔젤투자매칭펀드	50억 원	2012-11-23	2021-11-22(9년)
<b>2013년</b>	<b>430억 원</b>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3호	380억 원	2013-11-12	2022-11-11(9년)
경기엔젤투자매칭펀드	50억 원	2013-11-12	2022-11-11(9년)
<b>2014년</b>	<b>100억 원</b>		
아산나눔-모태펀드	100억 원	2014-01-29	2023-01-28(9년)
<b>2015년</b>	<b>320억 원</b>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4호	320억 원	2015-01-08	2014-01-07(9년)
<b>계</b>	<b>1,720억 원</b>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경력 요건

### ① 투자실적 요건(동시충족)

최근 3년간,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창업자(7년 이내)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총 1억 원 이상일 것

### ② 경력요건 (6가지 중 하나)

상장법인 창업자, 상장법인 등기이사로서 3년 이상 재직자, 투자심사경력 2년 이상, 기술사, 박사(경상계열, 이공계열),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엔젤 교육 수료자

매칭 투자금액은 투자대상기업당 1회 2억 원, 추가투자 1회를 합쳐 총 3억 원을 한도로 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의 경우 개인형 엔젤투자자, 법인형 엔젤투자자 등이 있다. 개인형 엔젤투자자는 1) 개별엔젤투자자, 2) 전문엔젤투자자, 3)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4)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자로 나눌 수 있다. 법인형 엔젤투자자의 경우 1) 적격엔젤투자 전문회사, 2) 적격벤처기업, 3) 대학관련 투자기관, 4)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은 엔젤투자자가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http://www.kban.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매칭투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한국벤처투자(주)의 현장점검, 1차 적격확인, 2차 적격확인에 이르기까지 총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진행 프로세스는 <그림2.엔젤투자매칭펀드 프로세스>와 같다.

2011년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1호를 시작으로 총 1,720억 원의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국단위의 펀드로 1,130억 원(아산나눔모태펀드 100억 원 포함)을 결성하고,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 강원, 대구, 경기지역에

각 50억 원 그리고 강원 지역에 30억 원 규모의 엔젤투자매칭펀드가 결성되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전국 대학의 스타트업 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 200억 원이 결성되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후 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는 '11년 기준 369명에서 '15년 6월 기준으로 8,431명으로 증가했으며, 엔젤클럽의 경우 '11년 9개에서 '15년 6월 기준으로 128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2~3년 동안 매달 300여 명의 신규 엔젤투자자가 등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으로 엔젤투자자 1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5년부터 중소기업청은 1,500만 원 이하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등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 엔젤투자 활성화에 대한 가속페달을 밟았다.

또한,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엔젤투자자에게 콜옵션(Call Option)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엔젤투자자가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일정기간 내(엔젤투자자 투자 후 1년 이후 3년 이내), 일정가격(투자원금에 5% 이자를 포함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세제혜택과 더불어 콜옵션과 같이 엔젤매칭펀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향후에도 엔젤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초기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보다 전문적으로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개인들이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 '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문엔젤투자자는 투자실적과 경력요건을 충족시켜야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에 중소기업청은 '전문엔젤투자자'에게 처음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15년 6월 기준으로 26명의 엔젤투자자가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았

다.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요건 : 5천만 원 이상 투자 + 자본금의 10% 이상)한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되어 법인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엔젤투자자는 엔젤투자매칭펀드 2배수 이내 매칭과 함께 매칭펀드 지분의 70%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은 1년간 최대 2억 원까지 R&D 자금을 지원(전문엔젤 투자금액의 2배 이내) 받을 수 있으며, 예탁금과 상관없이 코넥스(KONEX)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